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outh Korean marketing goes into overdrive with \$2bn order haul

국내 빅3 조선사들이 연말 막바지 수주에 열을 올리면서 지난주에만 20억달러 이상의 일감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올해 21척의 VLCC를 수주한 한국조선해양은 연말까지 25척이상의 VLCC 수주실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됨. 대우조선해양은 13,000~15,000TEU급의 컨테이너선에 대한 추가 수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됨. (TradeWinds)

CMA CGM looks to expand footprint of LNG-fuelled containerships

프랑스의 컨테이너선사 CMA CGM가 LNG추진 컨테이너선대를 추가로 확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됨. 아시아를 시작으로 미주지역까지 LNG추진컨테이너선 투입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보도됨. 회사측은, 다른 컨테이너선사들 또한 같은 투자 방향을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 (TradeWinds)

Flex LNG says 2021 will be an 'exciting year' for LNG carriers

겨울철 계절적 요인과 경기 회복 국면이 겹치면서 LNG선 운임 상승세가 가파르다고 보도됨. LNG화물운송계약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잠재적인 LNG수출물량 증가는 LNG선 신조선 공급상황과 균형을 이룰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로테르담 역사적인 LNG 벙커링

프랑스 선사 CMA-CGM의 주력선박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23,000TEU급 선박이 지난 12일 로테르담항에서 현존 최대 LNG벙커링선으로부터 LNG를 공급받기 시작했다고 보도됨. 벙커링 작업이 끝난 후 해당 선박은 다시 처녀항해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PC시장 강세기조로 전환

중동걸프(MEG) 지역의 석유제품운반선(PC) 운임 수입이 최근 들어 크게 상승하고 있다고 보도됨. 아시아지역의 나프타 수요 증가로 운선주들이 PC를 찾고 있는데다 공선 운항을 하는 선박도 줄어들었다고 보도됨. 중동-일본 항로의 LR2탱커의 운임은 1주일 전 대비 +71.1% 상승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컨테이너 물량 줄어도 운임은 상승

구주항로의 4분기 컨테이너 물동량이 3분기대비 감소했으나 평균 운임은 TEU당 1,097달러로 약 +2% 증가했다고 보도됨. 4분기에 구주항로의 물동량이 줄어든 것은 화물을 실어 나를 컨테이너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도됨. 11월 둘째 주 SCFI(Shanghai Containerized Freight Index)는 약 +20% 상승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